

이홍재의 세상만사



논설고문

야구에서 ‘투고타저’(投高打低) 현상이란 게 있다. 잘 던지는 투수들은 많은 데 비해 잘 치는 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때 쓰는 말이다. 이런 야구 용어를 빌려서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말하자면 ‘여고야저’(與高野低)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술한 위기가 있었으나 여당은 잘 해쳐 온 데 비해, 술한 기회가 있었으나 야당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리더십 부재가 결정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야당은 ‘사분오열’(四分五裂)된 가운데 ‘지리멸렬’(支離滅裂)했다.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겨어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결국 어느 때부터인가 야당은 그 어디에서도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야당 속의 호남은 더욱 처참하다. 역시 야구 용어를 빌려서 한 마디로 야당의 현주소를 표현하면, ‘영고호저’(嶺高湖低)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영남과는 달리 호남에는 도무지 두드러진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대선 주자만 보더라도 문재인·안철수 등이 모두 저쪽 출신이다. 서울과 충청에는 박원순·안희정이 있다. 이에 비해 이쪽 출신으로는 김대중(DJ) 대통령 이후 그 누구 하나 거론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호남 정치의 복원’이란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또 호남 정

치가 완전히 실종됐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이는 지역 정치인 스스로 공천에만 관심을 가진 가운데 ‘뒷발’에 안주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 정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가장 많이 했던 이로 박주선 의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호남인이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전면에 부상하면 전국 정당에 지장이 되고,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천박한 지역주의가 암덩어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전언(傳言)이다. 이런 의식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그는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범 친노’ 대 ‘비노·호남’ 대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는 문재인·박지원·이인영 후보로 압축됐다. 지역만으로 놓고 보면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 출신이 맞붙는다. 문(文)과 박(朴) 둘만 놓고 보면 각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 간의 대결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박지원 후보는 과연 호남의 마지막 주자로서 ‘호남 정치’ 복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초반 상황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흐

르는 것 같다. 2강(文·朴) 1약(李)의 3파전으로 치러지는 것도 그에게는 좋은 선거 구도다. ‘친노’(친 노무현) 진영의 표심이 문재인과 이인영으로 갈라지면서 결국 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이 후보는 막판 불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상임고문 측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정 고문은 ‘범 친노’ 인사로 분류된다. ‘범 친노’의 분열과 함께 ‘비노’의 결집은 박지원 후보에게는 호소식 중의 호소식일 것이다.

‘비노’의 중심에는 호남이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호남 출신 대의원들이 많아 박 후보로서는 해 볼 만하다고 한다. 게다가 중요한 사실은 지금 ‘동고동계’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박지원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DJ 서거 이후 ‘동고동계’가 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다.

특히 권노갑 전 의원의 관계 회복도 좋은 조짐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의 관계는 다소 소원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권 전 의원은 이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박 후보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이 아니면 호남 정치는 영원히 실종될지 모른다는, 그만큼 절박한 현실 인식이 작용

하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박주선 후보의 탈락까지 겹쳐 결국 호남 표는 박지원 후보에게 몰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문 후보와 이 후보의 막판 단일화 가능성 정도일 것이지만 이 후보는 끝까지 완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여러모로 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 박 후보에게는 ‘권력욕이 강한 정치인’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박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킹메이커’를 자임하고 나선 것도 그런 비판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권 교체를 위한 킹메이커

그는 “당 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위해 악역을 맡고 방패도 돼 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이 됐든 다른 젊은 대선 주자가 됐든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밀어 주겠단면서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계파 투쟁으로 얼룩진 야당에서 통합을 내세운 그의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그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그에게 씌워진 ‘구시대 정치인’의 이미지

는 적지 않은 부담일 게 분명하다. 칼에 비유하자면 ‘헌 칼’이라는 비판일 터인데 물론 칼도 칼 나름이어서 ‘조자룡의 헌 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다.

그가 당권을 잡으면 결국 ‘호남당’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그는 호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반박한다. 친노계가 ‘평 먹고 알 먹고’ 해서는 안 되며 당 대표는 호남에서, 대통령은 다른 곳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남에 눈에 띄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물은 1~2년 사이에 나오는 것 아니라는 점에서 그래도, 그래도 당대표로는 박지원밖에 없지 않느냐는 여론도 감지된다. 호남 정치의 미래 향방을 위해서는 그라도 앞장서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현 정부를 향해 간혹 ‘뺨’을 날리고 더러는 ‘어퍼컷’을 날릴 수 있는 인물이 박지원 말고 누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박지원은 과연 보란 듯이 당 대표에 선출되어서 호남 정치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다시 한 번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정당대회가 열리는 2월 8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광주를 수소車 상용화 전진기지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본격화… 전남은 첨단소재부품 육성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수소자동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보급에 주력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5일 대

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광주 혁신센터는 수소자동차의 부품

개발을 비롯한 실증·인증·테스트를 통한 상용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된다. 현재 수소자동차는 완성단계에 있으나 상용화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다 부품값이 고가인 발전기 개발이 시

급한 실정이다. 광주 센터는 상용화를 위해서는 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 충전소를 보급해 사용 인프라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현대차그룹이 광주시와 함께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신성 창업팀과 중소 벤처 기업들의 사무 공간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운영공간은 광주과학기술원 GTI(기술상용화 지원센터)와 광주 양동 KDB생명빌딩 16층 등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GS그룹이 추진 중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유기농 정부부지사들 단장으로 하는 혁신센터 준비단을 꾸려 GS그룹측과 만남을 갖고, 사업 발굴 및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는 여수에 후보지 3곳을 검토중이다.

도는 조만간 창조센터 구축 및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출범식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광양만권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 ICT 융합 스마트 농어업 분야 등을 신성장 창조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윤현석기자 chae@

닭·오리, 36시간 ‘이동 중지명령’

농식품부, AI 확산방지 17~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확산 기류를 차단하기 위해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중지 대상지는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6000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여 곳이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에 구제역 확산차량도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AI는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 무안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부산 강서구 육용오리 농가, 경기 안성 오리 농장,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등에서 잇따라 AI 의심 가금류가 발견됐다.

또 겨울철새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옮겨올 들어 경기 안성전, 충남 풍서전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이며, 이동중지대상지는 임상수의사, 증개상, 가축분뇨기사 등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휘발유 ㄹ당 1200원대 주유소 등장 전주 등 전국 4곳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속락, ㄹ당 1200원대 주유소가 속속 늘고 있다. 15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1200원대 주유소는 전국 4곳으로 집계됐다.

전주의 마당재주유소(셀프)와 인근 해오름셀프주유소가 휘발유를 각각 ㄹ당 1284원과 1294원에 팔고 있으며 충북 음성읍의 상평주유소(자가상표)는 1285원, 경북 안동의 안동

VIP주유소(셀프)는 1299원에 팔고 있다. 이들 주유소는 이웃 업소 간 경쟁 또는 고객 유치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휘발유 가격을 1200원대로 내렸다.

국내 주유소의 가격 인하 경쟁은 지난해 11월27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불가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이른바 ‘3차 오일전쟁’ 발발 후 시작했다.

/연합뉴스



수술대 오른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광주시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TF팀 1차 회의를 열고 개척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시 제공>

백원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 · 無출혈 · 無불합 · 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노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암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백원광주안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가격대폭 할인행사중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j 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는 기술

스피치 리더십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소임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K L E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062)222-2255 / HP, 010-9441-7000

친화 분위기하에 지대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